



미 증시, 6월 FOMC 결과 소화하며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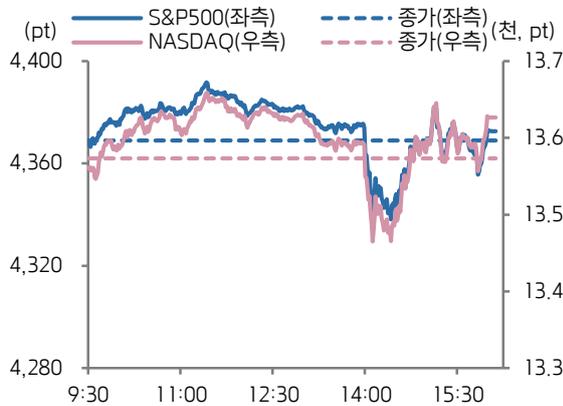
14 일(수) 미국 증시는 6월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점도표 상 연말 금리 전망치 5.6%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연내 2회 추가 인상 가능성 부각되며 장중 하락 전환.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덜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낙폭 만회하며 마감. (다우 -0.68%, S&P500 +0.08%, 나스닥 +0.39%)

6월 FOMC에서 연준은 5.00~5.25%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15개월만에 처음으로 인상 중단. 그러나 점도표를 통해 올해말 금리 상단 중간값이 작년 12월 5.1%에서 5.6%(시장 예상 5.4%)로 6개월 만에 0.5%p 상향.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는 상향, 실업률은하향 조정. 2023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0.4%에서 1.0%, 2024년은 1.2%에서 1.1%로 소폭 하향. 2023년 실업률 전망치는 4.5%에서 4.1%로 하향.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리게 완화하고 있다", "특히 근원 인플레이를 봐야 하는데 근원 PCE는 최근 6개월간 4.5%이상 유지하고 있어 목표치에서 너무 멀리 있다"고 설명.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언급. 그러나 "7월 금리인상 여부는 향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경제가 예상과 다르게 흐른다면 통화 정책 경로는 적절히 조정 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비중은 은행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잘 분포돼 있다"라며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일부 은행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YoY 1.1%(예상 1.5%, 이전 2.3%), MoM -0.3%(예상 -0.1%, 이전 0.2%)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한달 만에 재차 하락 전환. 노동부는 상품 물가 하락이 지수하락을 주도한 반면 서비스 물가는 두달 연속 상승했다고 언급. 식품, 에너지, 운송 제외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YoY 2.8%(예상 2.9%, 이전 3.2%), MoM 0.2%(예상 0.2%, 이전 0.2%) 기록하여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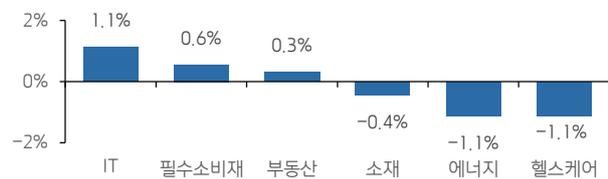
업종별로 IT(+1.1%), 필수소비재(+0.6%), 부동산(+0.3%) 강세, 헬스케어(-1.1%), 에너지(-1.1%), 소재(-0.4%) 약세. AMD(2.25%)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AMD의 새로운 AI 칩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강세. 테슬라(-0.74%)는 수요를 낙관하며 모델 Y 가격을 소폭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14거래일 만에 하락전환.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19.08	-0.72%	USD/KRW	1,278.34	+0.54%
코스피 200	344.65	-0.5%	달러 지수	103.01	-0.31%
코스닥	871.83	-2.79%	EUR/USD	1.08	+0.01%
코스닥 150	1,332.18	-4.06%	USD/CNH	7.17	+0%
S&P500	4,372.59	+0.08%	USD/JPY	140.02	-0.05%
NASDAQ	13,626.48	+0.39%	채권시장		
다우	33,979.33	-0.68%	국고채 3년	3.539	+5.4bp
VIX	13.88	-5%	국고채 10년	3.625	+4.5bp
러셀 2000	1,874.10	-1.17%	미국 국채 2년	4.688	+2.2bp
필라. 반도체	3,739.75	+1.52%	미국 국채 10년	3.786	-2.7bp
다우 운송	14,641.86	+1.34%	미국 국채 30년	3.882	-3.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75.98	+0.65%	WTI	68.27	-1.66%
MSCI 전세계 지수	679.10	+0.32%	브렌트유	73.62	-0.9%
MSCI DM 지수	2,939.59	+0.34%	금	1968.9	+0.53%
MSCI EM 지수	1,014.91	+0.16%	은	24.11	+1.19%
MSCI 한국 ETF	66.88	-0.93%	구리	387	+1.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7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2.1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6월 FOMC 결과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중립 이상의 영향력 행사 여부 2. 전일 동반 급락한 2차전주들의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여부 3. 장중 중국의 5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가 국내 시클리컬주들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6월 FOMC 시사점)

a) 점도표 상으로는 매파적이었으나,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점도표보다 덜 매파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것에 시장은 일정부분 안도한 것으로 보임.

b) 7월 인상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지만,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 신용환경 모니터링 필요 등을 감안 시 7월은 동결 예상(Full Stop, No Skip). 대신 7월에도 파월의장은 연내 인하를 놓고 지금처럼 시장에 모호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

c) 이번 FOMC 는 주식시장에 중립적인 수준이며, 이를 반영한 단기 증시 경로(1~3개월) 상으로는 연준 정책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겠으나, 중기(3개월 이상) 경로 상 상승추세는 훼손되지 않을 전망이다.

d) 다만 6월 FOMC 결과를 놓고 시장참여자들간 의견 정리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금주 남은 기간 예정된 ECB, BOJ 통화정책 회의,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또 다른 주요 이벤트와 맞물리면서 차주 초중반까지는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e) 금주 이벤트 및 6월 FOMC 에 대한 교통정리를 소화하고 나면, 7월 초까지 사실상 주요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 차주부터는 2분기 실적시즌 프리뷰 국면에 돌입하기에, 당분간 개별 실적 전망에 따라 최근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

(6월 FOMC 주요 내용 및 평가)

6월 FOMC 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점도표 상으로는 '23년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기존 5.1%에서 5.6%로 상향하면서 추가 2회 금리인상을 예고. 또한 '23년 성장률(3월 0.4% → 6월 1.0%), 코어 PCE(3.6% → 3.9%)는 상향 조정한 반면, 실업률(4.5% → 4.1%)은 하향조정 하는 등 경제 전망치 상으로도 매파적인 신호를 준 상황. 이 밖에도 총 18명의 연준 인사들 중에 12명이 추가 금리인상을 주장한 것이 점도표 상으로 확인되면서 연준 내부적으로 여전히 매파 성향이 짙음을 시사. 파월 의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는 높은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는 등 6월 FOMC 는 다분히 매파적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것은 맞음.

그러나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추가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을 곳곳에서 포착이 됐다는데 주목할 필요. a) 일례로 7월 금리 인상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b) 지난해에는 금리인상 속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고, c) 최종금리 수준에 훨씬 더 가까워진 데다가, d)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라고 언급했다는 점들이 대표적인 사례들로 볼 수 있음.

결국 6월 FOMC 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부합하는 매파적인 동결에 그친 것으로 판단. 5월 CPI(4.0%YoY vs 5월 4.9%), PPI(1.1%YoY vs 5월 2.3%) 등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 후행적인 결정을 강조한 파월 의장을 발언을 고려했을 때 7월에도 금리 동결(Full Stop, 긴축 사이클 종료)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 동시에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연준 인사들 발언, 뉴스플로우보다는 고용, 소비, 물가 등 실제 데이터에 따라 수시로 전망들이 변할 수 있다는 가변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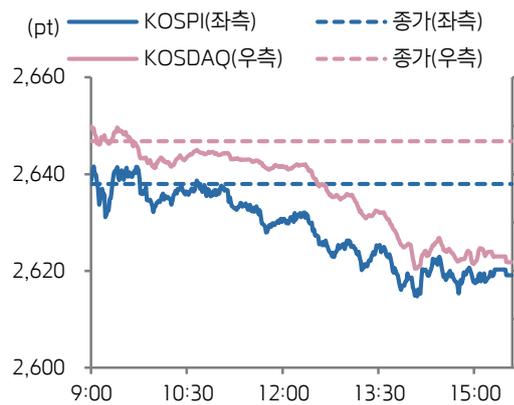
(국내 증시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6월 FOMC 경계심리 속 개별악재로 인한 2차전지주 동반 급락(미국 정부의 중국 배터리 공장 승인 소식 등) 여파로 인해 코스닥을 중심으로 급락 마감(코스피 -0.7%, 코스닥 -2.8%).

금일에는 예상에 부합했던 6월 FOMC 결과를 소화하는 가운데, 미국 5월 PPI 둔화, 원/달러 환율 재급락(역외 -8원), 엔비디아(+4.8%), 마이크론(+1.8%) 등 미국 AI 및 반도체주 강세 효과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다만, 상기 언급했듯이 6월 FOMC 결과를 놓고 국내 증시 장중에도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반등 탄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금일 국내 증시는 중립 혹은 중립 이상의 주가흐름 정도를 연출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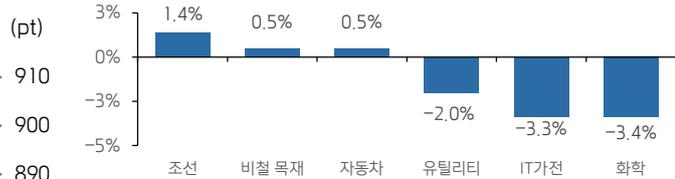
장중에는 중국의 5월 소매판매(컨센 13.9%YoY vs 4월 18.4%) 산업생산(컨센 3.8%YoY vs 4월 5.6%) 등 실물 경제 지표 발표 이후 위안화 환율 변화에 주목할 필요. 이전에 비해 중국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 증시 민감도가 낮아졌으나, 여전히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철강, 기계 등 일부 국내 시클리컬 업종의 주가 변화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또 미국 정부의 중국 배터리 공장 승인이라는 기존의 악재를 빌미로 전일 장중 폭락세를 겪었던 2차전지주들에 대한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여부도 장중 관전 포인트가 될 것.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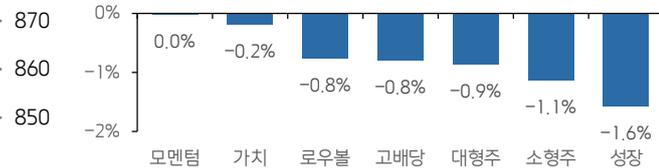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